

홈 >> 뉴스데스크 > 경제

## “청년 일자리 창출·노사 안정 주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노사민정 네트워크·파트너십 강화  
일학습병행 등 특성화고 훈련지원 노동법제 선진화 정책 활동 전개  
금요조찬포럼 내실화로 발전 기여

입력날짜 : 2017. 01.15. 19:30

“적극적인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발전과 더불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15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올해 탄핵과 대통령 선거 등 복잡한 정치 일정에 따라 ‘경제를 위한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상황의 위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노사관계 안정에 집중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역 유일의 사용자 단체인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새해에도 고용 창출, 교육훈련 등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산업평화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올해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하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숙사, 통근버스 지원사업 등을 펼쳐 청년이 모여드는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학습병행제와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특성화고 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직업훈련 중심의 취업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민정 협력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광주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노사민정 포럼, 상생 프로젝트사업, 갈등 조정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 지역 내 노사민정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광주시의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참여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적정 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축소,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 축소, 임금피크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제의 선진화를 중심으로 정책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광주경총은 27년째 매주 추진해 오고 있는 ‘금요조찬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공감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교육과 소통의 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단순한 강의와 정보제공의 시간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1981년 설립된 지역 유일의 사용자 단체로서 정회원 200여개사와 특별회원 1천30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